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29. 다섯째 여섯째 인

2013. 07. 2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6장의 넷째 인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6장에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6:9~11]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넷째 인을 떼 때 있었던 사건을 살폈습니다. 청황색 말이었지요. 기수는 이름이 사망인데 70인 역의 경우 헬라어 다나토스가 역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역병을 앓게 되면 죽으니까 사망이라는 본뜻으로 봐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역병으로 죽으니까 음부 곧 무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기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답: 이 말씀은 에스겔 14:21의 사건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번 읽어보지요.

[겔14:2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도 계시록과 똑 같지요. 사망 대신에 온역인데, 70인 역에 다나토스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범죄한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난의 상태입니다. 검은 전쟁을 상징하며, 흉년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망은 온역으로 죽는 것을 말하며, 짐승으로 인한 죽음은 전쟁 이후에 나타난 황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재앙으로 보고 전쟁의 뒤따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이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병상에 던지고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하셨지요. 침상은 병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넷째인의 이 네 가지 환난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게 배도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암흑시대로 불리는

그런 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장악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 내부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환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말씀에 의하여 정죄될 것입니다.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지요. 엘리야 때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기근이 심했지요.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을 식량 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3년 반을 걱정 없이 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기근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 곧 온역은 역병인데 청황색 말 시대, 곧 두아디라 시대 교회의 건강상태입니다. 엄청 나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인데, 생명이신 예수님 대신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의 교훈을 따르니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짐승은 어쩌면 거룩한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행패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벧후2:10~16] 율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훼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16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작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짐승은 이렇게 거룩한 이성을 잃어버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모시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와 아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한 넷째인 시대와 잘 일치하는군요. 정말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서양사에서도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니, 성경 예언과 역사학자들의 표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그렇지요.) 이제 다섯째 인을 설명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예,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계6:9~11]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다섯째 인을 뿔 때 보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시작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밧모 섬에 귀양 간 사실을 기록했지요. 그런데 다섯째 인 시대의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형성되기 전인데, 계시 중에 본 다섯째 인 시대에는 이미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지만 요한은 그 이름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증거 곧 요한이 예수의 증거라고 한 그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시대에 특히 많이 순교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해해야 할 문제들이 있네요. 제단은 무엇이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런 문제들이 그리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3.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답: 이런 경우는 본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여기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아니고 영혼 자체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된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냥 슬쩍 읽으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오해하기 좋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자신이라는 말이지요.

4. 영혼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군요. 정말 그냥 영혼불멸설이 상식이 되어 있는 눈으로 읽으면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겠습니다. 정말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답: 그 말씀은 아주 당연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좀 봅시다. 22:27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겔22:27]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예, 이 말씀을 보니 영혼을 피를 흘려서 멸한다고 하지요. 영혼이 멸하게 될 때에 피를 흘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에스겔 18:4을 읽어봅시다.

[겔18: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씀도 영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은 사람의 불멸하는 어떤 존재가 아

입니다. 죽는 존재인데, 죄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의인들은 악의 세력이 환난과 핍박으로 죽이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말은 순교자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성경구절들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영혼이 어떻게 호소합니까? 영혼이 살아 있으니까 호소하지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답: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한 본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광경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지요. 계시적 광경이며 상징적 광경입니다. 제가 실제적 형상과 계시적 형상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4장의 보좌 주위의 광경이나 5장에 보좌 주위의 광경이 다 계시적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일곱 뿔을 가지고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실제적 형상이 아니지요. 또 말들이나 그 말을 탄 기수들의 모습이 실제적이 형상이 아닙니다. 똑 같이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는 모습도 계시적 형상인데, 그것은 산 사람처럼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에는 산 사람의 형상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시의 광경을 살피고 설명할 때에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혼이 죽는다고 분명히 가르치는데 영혼은 불멸한다고 확증해놓고 마치 영혼불멸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구절들을 찾아서 거기 적용시키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불멸한다고 가르친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인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청자들께서는 사단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몸을 떠나서 따로 인격적 생명체로 사는 영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했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또 영혼을 죽일 때는 피를 흘린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쳐놓고 어느 구절의 자구(字句)에 매여서 원리를 허무는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6.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입니까?

답: 예언적 장면, 즉 계시적 형상으로 제시된 제단은 옛날 성소의 늦 제단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마도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들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소봉사에서 희생제물의 피는 그 늦 제단 아래에 쏟았고, 70인 역에서 “육체의 생명”으로 번역된 프쉬케는-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인데요,-곧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순교에 자신을 바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처럼 계시적 형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후기 유대인 전승은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은, 말하자면 제단 아래 매장되었고, 제단 아래 매장된 자들은, 말하자면 영광의 보좌 아래 매장되었다는 사상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제단이 계 8:3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시적 형상으로 보인 제단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단 자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교로 스스로 제물이 된 순교자들의 호소가 중심

입니다.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광경으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단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는데요, 8:3과 동일한 것으로 볼 때에 하늘에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만, 역시 계시적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7.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죽게 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까? 이 장면을 읽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인데 그들을 죽인 자들을 보복해 달라고 호소하겠습니까?

답: 목사님 말씀은 깊이 생각할 만한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읽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계6: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잖아요. 피를 신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심판하여 신원하기를 원하거든요. 심판은 크리노입니다. 이것은 정죄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으니 심판이지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장면으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소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이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는데(창4:10)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를 들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이런 계시적 형상의 장면으로 보여주셨는데, 가인은 땅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요일3:12) 악한 자는 세상 어두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하여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달라는 것인데, 신원(伸冤)은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뜻이거든요. 복수해달라는 의미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그런 시각은 반드시 도덕적 시각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신상필벌의 사상이지요. 이것은 선악 도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종교나 교육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상으로 이것을 말할까요? 다음 몇 구절을 읽어봅시다.

[잠24:29]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롬12:19~21]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을 보면 성경의 심판이나 신원은 도덕적인 것보다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글쎄요? 그런 같기도 합니다만?) 순교자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당연하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순교자들을 신원하는 것이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신원이 아닐까요?(그럴 것 같

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스테반과 바울이 만나면 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스테반이 바울을 반갑게 열싸안고 당신도 여기 왔구려 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멋진 신원이 아닐까요? 여기 순교자들의 호소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방법은 첫째가 핍박 자들을 바울처럼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그렇게 권고해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소멸하겠지요.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8.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교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하셨지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슴에 찡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 주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호칭은 성경에 몇 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답: 예, 대 주재라고 번역되었는데, 그냥 주재입니다.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평범하게 사용하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주재가 틀림없지요. 우리 번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곧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시지요. 이 칭호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주의 주재이십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둘로스인데, 이 말은 바로 데스포테스의 반대어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충성한 사람들이지요.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의 처지도 생각했겠지요. 자기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음 구절에서 보겠지만, 흰 옷을 주어 입히시며 위로하시고 보상할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마음이 뜨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목사님, 시간 때문에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순교자들을 위로하시고 신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함 같이 자비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